

문화

불음 포교는 평생 숙원 불사 “전문화된 합창단원 양성 절실”

대한불교중앙합창단 설립하는 황학현 예술감독

“최근 불교 관련 칸타타나 오페라 등 대형 음악회가 1년에 3,4회 이상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교음악의 폭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아직 불교계는 전문 혼성합창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죠. 대형곡을 소화할 불교혼성합창단이 없으니 공연마다 외부 전문합창단이나 대학의 성악과 학생들을 단체로 참여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늘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불교중앙합창단 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생각했습니다.”

혼성합창단 ‘대한불교중앙합창단’ 이사장 초격, 이하 불교중앙합창단) 설립을 위한 오디션이 9월 6일부터 매주 토요일 종로구 견지동 전법회관 6층에서 개최된다. (사)예술로 여는 복된 세상 해피월드(이하 해피월드) 황학현 예술 감독은 108 단원을 목표로 불교중앙합창단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 황 감독은 불자들이 구성된 전문 합창단 설립으로 신행과 예술활동을 겸한 합창단을 이끌 예정이다.

황 감독은 1970년대말 조계사 어린이법회 지도를 시작으로 찬불가를 보급해 오다가 1993년 대한불교소년소녀어린이합창단을 창단 어린이 합창단의 전문화를 꾀해왔다. 이곳에서 그는 지난 20여년간 졸업생 4백여명과 음악전공자 40여명을 배출했다. 이 중 성악 전공자들은 조계사, 석왕사, 삼선포교원, 보광사 등에서 불교 합창단을 지휘하고 있고 20여명은 국립합창단과 시립합창단 등에서 다양한 음악활동을 펼치고 있어 불자 음악인 양성의 산과 역할을 해왔다.

그가 불교중앙합창단 설립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지난 1월 미주 전법 50주년 기념



황학현 예술 감독은 108명 단원을 목표로 대한 불교중앙합창단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

오페라 등 불교계 대형공연 위한

전문 혼성합창단원 108명 목표

9월 6일부터 매주 오디션 진행

념사업회 초청으로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미주 4개 도시를 순회하면서다. 여기에 같이 합류한 서울·경기남부불교합창단연합회 회원들이 전문화된 혼성합창단 양성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에 황 감독은 공연 중심의 전문 불교혼성합창단을 기획하게 된 것이다. 현재 해피월드는 기존 서울·경기남부불교합창단연합회 회원과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졸업생 등으로 구성된 50여 단원을 확보 연습을

시작한 상태이며, 108명 선발을 목표로 단원 모집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테너 이승훈 씨를 지휘자로 영입해 단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승훈 지휘자는 미국 줄리아드 음악대학 및 동대학원(성악전공) 졸업, 동국대 연극학부(무지컬) 등에 출강하고 있는 실력파 음악가다.

황 감독은 합창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실력 있는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초창기 어린이 합창단을 구성할 때는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예쁜 의상을 입고 무대 구성을 잘해서 노래를 부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찬불가의 보급을 위해서는 합창단의 전문화가 절실하다고 느꼈죠. 이번 불교중앙합창단 역시 전문화된 합창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훌륭한 지도자 영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이승훈 지휘자의 꼼꼼한 지도에 단원들이 너무나 만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단원들을 모집해 본격적인 연습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불교합창은 문화예술 활동의 차원을 넘어 하나의 신앙이며 수행이며 복전이라고 말하는 황 감독. 그는 중앙합창단이 교계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외부에서 영입한 비불자 합창단원들이 찬불가를 감동적으로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혹 이들이 성공적인 연주회를 했다고 해도 순수한 불자의 공연이라고 할 수 없죠. 앞으로 108명의 전속 불자 합창단원을 양성해 불교계의 영향력 있는 혼성합창단을 구성해 감동의 무대를 펼칠 생각입니다.”

불교중앙합창단은 30세~65세 성인 불자 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108명 정단원을 목표로 9월 6일부터 매주 오후 5시 오디션을 이어간다. 가창(자유곡) 및 면담으로 오디션이 이루어지며 장소는 종로구 견지동 전법회관 6층이다. (02)725-7849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20주년 기념공연



미주 50주년 기념사업회 초청공연. 캐나다 더글러스칼리지서 공연했다.

흘날리는 꽃잎 밟고 홀로 돌아가는 사람

아침과 저녁, 그 다른 느낌

그렇다면 김상현에게 지어준 장유의 시는 어떤 것일까? <계곡선생집>제29권에 실린 5언율시 ‘광릉을 봉심하러 가는 도중에 시 한 수가 이루어졌기에 청음 종백과 해송 도위에 써서 드리다(奉審光陵途聞吟成 錄呈淸陰宗伯海嵩都尉) 이다.

웅전경사원(擁傳經沙苑)
명가도석량(鳴珂度石梁)
조휘쟁영영(朝暉爭掩映)
악색송청창(嶽色送靑蒼)
요요천원형(繚繞川原迴)
인운초수향(蔞 草樹香)
정도접현개(征途接軒蓋)
쇠줄역휘광(衰拙亦輝光)

승전을 받들고서 모래 화원 지나가고
말방울 울리면서 돌다리 건너가네.
다투어 명말하는 눈부신 아침 햇살
길은 쪽빛 배어나는 산악의 색깔
멀리강과 언덕 휘둘러 에워싸고,
숨이 온통 막힐 듯 자옥한 초목 향기
수레를 접하고 이렇게 길 가다니
변변찮은 이 몸이엔 또한 영광이외다.

장유는 아침나절 광릉을 향해 가며 만나는 풍경과 정취를 매우 세밀하게 그려내고 있다. 무엇보다 오감을 자극하는 시어들로 광릉을 향해 가는 선비의 행로를 묘사하고 있다. 말방울 소리를 들려주고, 눈부신 아침 해와 쪽빛 산악을 보여주고, 초목의 향기를 맡게 해 주고 있으니 말이다. 이렇게 광릉을 향해 가는 아침나절이 한 편의 시로 완성되었는데, 광릉에서 일을 다 보고 봉선사에 들린 이야기도 시로 지어져 전하고 있다. 그의 문집에 실린 ‘봉선사를 제묵으로(題奉先寺)’라는 시에서는 광릉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봉선사에서 묵는 과정을 정갈하게 그렸다.

승집인왕사(勝集因王寺)
자유분불기(茲遊不期)
역정비개지(驛程飛蓋地)
승원대상시(僧院對床時)
옥루종음월(玉漏鐘音徹)
금파찰경이(金波剎影移)
귀래진토리(歸來塵土裏)
왕적입신시(往跡入新詩)

배어난 이모임 왕릉 일 때문이지만
여기에 노닐 줄은 미리 알지 못했네.
마치 땅을 밟듯 달려오니
절에서는 저녁공양 시간이로다.
옥루의 종소리 하늘을 뚫는 듯한데
금빛 물결이 절 모습 옮겨져 있네.
속진으로 돌아갈 때에
자든 자취 새로 지은 시에 들어 있네.

임연태 시인 山寺에 갖는 선비의 詩心

㉔ 봉선사 ㉔



봉선사 일주문 전경. 선비들은 봉선사에서 여유와 흥취를 느끼며 시를 지었다.

아침에 올 때와는 사뭇 다른 여유와 흥이 느껴진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봉선사에 와서 저녁을 먹고 종소리를 듣는 그 여유 속에서 선비의 마음은 새로운 시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절에서 하루를 묵고 가는 그 마음이 드러난 결과는 한 수행자의 오도송에 가깝다. 속진으로 다시 돌아갈 때 뭔가 ‘새로운 마음’이 새로 지은 시에 들어 있다는 것은 자신도 몰랐던 흥취를 시로 표현했음을 말하는 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비밀스러운 그 무엇을 독자들에게 상상해 보라고 맡겨 버린 듯이.

종명원사월함산(鐘鳴遠寺月含山)
은영촌등수리간(隱映村燈樹裡看)
청효독심전로거(淸曉獨尋前路去)
통음추색백운한(洞陰秋色白雲寒)

먼 절 종소리 들리고 달빛 산 머금었는데
어리머리는 마을 등불이
숲속에서 아른거려네.
이른 새벽 홀로 왔던 길 돌아보니
가을 그윽한 그늘 흰 구름에 더욱 자갑네.

김수항(金壽恒 1629~1689)의 시다. 제목은 ‘제봉선사(題奉先寺)’이며 그의 문집 <문곡집>제2권에 전한다.

어떤 연유로 왔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김수항은 지금 봉선사 근처에 있다. 그것도 이른 새벽이다. 새벽에 들려오는 절의 종소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깊은 사색에 빠지게 한다. 종소리가 들리는 그 시간 살아 온 날들을 회고 하는 한 선비의 심정은 어땠을까?

김수항 역시 오도송을 읊는 듯이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어떤 정황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가을의 이른 새벽 흰 구름이 풍경이 더욱 차갑게 느껴진다는 솔회로 시를 마무리하고 말았다. “인생이라는 거? 이른 아침 흰 구름 같은 거야”라

고 말하는 듯이 말이다.

절은 깨달음의 공간

아무래도 절은 깨달음의 공간이다. 절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시를 짓고 삶의 궤적을 더듬는 동안 가슴 속에 묻혀 있던 본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한편의 시로 표현되는 것이다.

효몽회청성(曉夢回淸聲)
공림만원춘(空簾滿院春)
암등고좌불(巖燈孤坐佛)
잔월독귀인(殘月獨歸人)
마담림화락(馬踏林花落)
의침초로신(衣沾草露新)
전계명인수(前溪鳴咽水)
사소객래빈(似訴客來頻)

새벽꿈에 청량한 소리 들리더니
빈 주련에 붉기운 가득하다.
어둑한 등불에 외로운 좌불상
지는 달빛에 홀로 돌아가는 사람 있네.
말은 숲속 홀달리는 꽃을 밟고 달리니
웃은 풀잎에 맺힌 이슬에 젖는구나.
앞 시내 오열하는 물소리
마치 객이 와서 자취 하소연하는 듯.

<대동시선>에 전하는 이단상(李端相 1628~1669)의 시다. 제목은 ‘저문 불날 광릉 봉선사에서 자다(暮春宿光陵奉先寺)’이다. 제목부터 매우 서정적이고 운치가 있다. 이 시에 흐르는 분위기 또한 한 수의 오도송이라 할 만하다.

시를 절반 나누어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의 시간과 공간이 다르다. 새벽 절집에서 잠을 자고 돌아가는 선비는 흘날리는 꽃잎을 밟는다. 꽃잎, 그 길이 깨달음의 길이라면 지나친 비약일까? 마음이 이미 더없이 충만한 열락의 길, 그래서 시냇물 소리가 오열하는 듯 들리는 것은 오도송이다. 물소리의 오열은 세상살이의 은갯 시름이겠거니.

한마음선원에서 발행하는 어린이 인성교육 월간지 <마음꽃>은 어른들도 함께 보는 어린이 마음공부 놀이터입니다.



친구가 내 다리를 걸어서 넘어졌다. 하지만 ‘화내지 않고 말라게 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친구에게 차분히 물어보았더니 교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했다. 화를 내지 않아서 다행이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자.

김상현 (초5)

마음꽃

“가기 싫은 학원을 즐겁게 갈 수는 없을까?”
“보기 싫은 친구를 사랑할 수는 없을까?”

나와 같은 고민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마음꽃>에서 만나보세요.



정기구독 안내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31)470-3180 / 010-5650-3180
정기구독료 :
30,000원 (1년 / 12권)
입금 계좌 :
농협 356-0822-8773-23
(예금주 : 권나래)

* 사설이나 학교·도서관에 기증되는 마음꽃은 구독료를 받지 않습니다.*